

## 스쿠이 어법

썰물 때 나가하마 해안을 걷다보면 조수가 빠진 곳에 안쪽을 둘러싸듯 만들어진 낮은 돌벽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돌담은 이시히미라고 불리며, 전통 어법인 스쿠이 어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.

아리아케카이에서는 썰물과 밀물의 차이가 무려 6미터로 아주 큽니다. 옛날부터 시마바라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을 위해 조수를 이용해 왔습니다. 사람들은 반도에 풍부한 화산암 돌을 사용해 해안선에 반원형을 그리듯 원형돌을 1~2m 쌓아올려 고기잡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. 밀물로 물이 완전히 장치로 밀려들면서 물고기, 게 등 다양한 해산물이 그 안에 갇힙니다. 다시 썰물이 되면 어부들은 장치에 걸린 신선한 해산물을 대량으로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.

시마바라 어부들은 여러 세대 동안 스쿠이 어법을 이용해 왔지만, 1920년대에는 이 전통 기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2008년에 지역의 어부 그룹이 이 전통을 되살려 돌담을 재건했고, 매년 봄 이곳에서 스쿠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.